



상악 무치악 환자에서 Implant를 이용한 Fixed metal ceramic bridge 증례

고문정*, 박필규 | 서울보훈병원 치과보철과

전악 무치악 환자에 있어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양식은 크게 고정성 보철물과 가철성 임플란트 피개의치로 나눌 수 있다. 수술에 앞서 진단용 모형, CT나 파노라마 등의 방사선 사진, 구강내 사진, 환자의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보철 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무치악 환자들이 노인이므로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 연령 및 전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치악 환자의 고정성 금속 도재 브릿지 수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악간관계와 최소한의 치조제 흡수상태를 지녀야 하며, 수직적이고 풍용한 양상의 치조제 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보철수복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최종 수복물에 맞는 위치에 적절한 크기와 수의 임플란트가 매식되어야 한다. 본 증례는 65세 남환으로 위 앞니가 흔들리고

아래 틀니가 불편함을 주소로 내원 하였으며, 치과 치료시 고려 할만한 전신질환은 없었고 10년 전에 상하악 국소의치를 제작한 치과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3도의 동요도를 보이는 상악 전치부를 발치하고 임시 틀니를 제작, 사용하게 한 뒤 진단용 모형, 방사선 사진 등을 통해서 진단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CT소견에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잔존골이 존재하였고 적당한 lip-support를 보였으며 악간거리가 양호한 상태였다. 더욱이 고정성 보철물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가 높아 총 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임플란트 Fixed metal ceramic bridge로 수복하기로 결정하고 치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능 및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